

영암군, 제3차 농정 혁신과 상생협력 방안 T/F 회의 개최

경종·축산·조사료 농가 함께 농업발전 방향 모색 “농정 혁신과 상생협력 이룰 수 있는 방안 함께 고민”

영암군은 제3차 '농정 혁신과 상생협력 방안 T/F' 회의를 23일 영암군청 2층 낭산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해 11월 16일 조사료생산의 내실을 다지고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경종·축산·조사료농가 및 관련 행정부서 관계자 협업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전 1차 회의에서는 농가 경영 안정 및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건의(예로) 사항을 폭넓게 논의하였으며, 2차 회의에서는 경축순환농업을 중심으로 단계별 개선방안 모색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며 한층 더 심화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3차 T/F회의에서는 조사료 분야에 대한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혁신과 상생의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있는 T/F 회의를 이어가 지속적인 농생명산업을 일구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농가들과 함께 농정 혁신과 상생협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환경지킴이 소통역량 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 개최

환경미화원, 청소차운전원, 환경 관련 업무 담당자 참여



무안군은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총 3회에 걸쳐 1박2일동안 충남 보령에서 환경지킴이 소통역량 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과 환경 관련 업무 담당자 등 108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

숍은 군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조직원 간의 유대감화, 청소관련 업무 근로자의 감정치유와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 재충전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의사소통 스킬과 스트레스 관리, 무지 테라피 등의 교육프로그램 참여와 안면도 수목원 힐링 탐방으로 그동안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 해소와 치유의 시간을 보냈으며, “같은 일을 하는 타 소속 직원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준 무안군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산 군수는 “앞으로도 환경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역량 강화 및 힐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직원복지 증진과 주민들에게 더 질 좋은 청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함평군, 노후경유차 폐차비 지원...3월 2일부터 접수

기존 5등급→4등급까지 확대

함평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을 추진한다.
함평군은 26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53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은 25대를 배정해 총 9억3천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은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중 건설기계에만 지원하던 보조금을 올해 4등급 경유 자동차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에 신청일 기준 함평군에 6개월 이상 등

록돼 있는 4·5등급 경유 자동차와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 덤프트럭 등 2009년 8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후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 우선순위로 배정되면서 10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24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차종 및 중량별 지원 상한액과 지원율, 추가 지원항목 등은 함평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평=김광춘기자

영광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지급 접수

업체당 50만원 영광사랑카드 지급

영광군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2023년 영광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관내 영영중업(23. 1. 31. 이전 개업자) 소상공인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사행성 업종, 병원, 부동산산업대업 등)이나,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한 태양광·풍력발전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영광=서희권기자

신안군-파라과이 과이라주와 손잡고 남미시장 개척 나선다

자매결연 협약체결

신안군이 국제 자매결연으로 파라과이 과이라(Guaira)주와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한다.
신안군은 22일, 신안군청에서 파라과이 과이라주(주지사 바레토 코르테시 카를로스 알베르토)와 '통상을 위한 자매결연(MOA)'을 맺었다. 이날 맺은 자매결연은 신안군의 남미권역 최초 자매결연으로 2015년 중국 대흥구 이후 8년 만이다.
이날 행사는 박우량 군수,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 신안군의회 의원, 바레토 코르테시 카를로스 알베르토 주지사, 이동호 외교책임

관 등이 참석하여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신안군과 파라과이 과이라주는 이날 자매결연에 따라 앞으로 △각 지역 특산품에 대한 상호 구매 △각 지역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구매 △수산물 등 상호 특산물 유통 및 협력 공유 △상호 협력 가능 분야 발굴 △협력관계 구축·다양한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국내 천일염 생산의 94%를 차지하는 신안 천일염, 친환경으로 양식하는 김, 전국 친환경 유기농 쌀 재배면적 2위의 신안쌀 등 신안군 농수산물의 남미권 판로를 개척하여 K-FOOD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목포시, 소상공인 '동네가게 함께가게' 홍보 영상 무료제작 및 광고 지원한다

목포시가 소상공인들의 홍보를 지원하고 전담공공배달앱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료로 홍보영상을 제작 및 광고하는 2023 '동네가게 함께가게' 홍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소상공인 및 공공배달앱 제휴업체(이하 소상공인)의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도에서 홍보영상을 무료로 제작, TV 30개 채널에 송출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 10일까지 목포시청 3층 지역경제과 사무실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목포시 양율로 203, 3층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담당자 앞)으로도 가능하다.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다. 목포=기동채본부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뀐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